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1, 종교철학 소개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종교 철학 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종교철학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짐 스피겔입니다. 저는 종교철학과 윤리철학을 전문으로 하는 철학 박사이며, 두 분야 모두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 철학에서 제 주요 관심사와 학문적 추구는 섭리 교리와 지옥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다른 많은 이슈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종교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종교철학은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신념에 관련된 개념, 아이디어, 주장에 대한 철학적 고찰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신념과 실행 모두에 관련된 개념과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포함됩니다. 또한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 신학은 특정 종교 전통 내의 개념과 교리에 대한 철학적 또는 비판적 검토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내에서 속죄의 논리나 지옥 교리 또는 특정 신적 속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또는 검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신론적 주장, 신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때때로 유신론적 증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힘에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론적 주장은 우주의 제1원인에 대한 필요성에 근거한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니다.

목적론적 논증 또는 설계로부터의 논증. 신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논증. 정신 또는 의식으로부터의 논증.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신이 완벽한 존재이며 전능, 전지, 전능함을 포함한 모든 완벽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추론합니다. 따라서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존재의 완벽함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믿음에 대한 실용적 또는 실용적인 논증, 때로는 신을 믿는 신중한 이유라고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살펴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무신론과 새로운 무신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신론은 지난 10년이나 15년 동안 일종의 문화적 운동이었고, 그 운동의 리더 중 일부와 그들이 신이 존재할 수 없거나 신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신하는 이유, 또는 리처드 도킨스에 따르면 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약 99%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무신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된 인식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 논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취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데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자에게 적절한 시작점 또는 기본 믿음입니다.

개혁된 인식론자에 따르면, 신에 대한 믿음을 기본 가정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또한 종교적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반대 의견인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전능하고, 모든 것을 선하고, 모든 것을 아는 신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만연한 고통과 부도덕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종교인은 그 반대 의견에 답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신이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취한 여러 가지 소위 신정론 또는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악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은 악의 문제에 신성한 은폐의 문제라고 불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신의 존재가, 만약 그가 존재한다면, 왜 그렇게 불분명할까요? 왜 신이 실재한다는 것이 더 확실하고 명백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 자체로 일종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은 유신론적 믿음에 대한 표시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존재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주장과 탐구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또한 여러 각도에서 지옥 교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 악의 문제의 한 측면으로서, 지옥의 현실이 종교적 믿음에 반대하는 일종의 증거를 구성하는가? 또한 지옥의 문제 또는 지옥 교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지옥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특히 저주받은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보편주의자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가, 아니면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만 지옥은 그렇지 않은가? 전통적인 견해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주장했듯이 저주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고문인가? 아니면 조건적 불멸주의 또는 소멸주의라는 덜 알려진 견해에 따르면, 지옥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길이 측면에서 유한한가, 아니면 적어도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존재하지 않게 되는가? 그들은 결국 소멸되어 그들이 온 무(無)로 돌아가는가? 또한 종교적 다원주의와 하나의 종교 또는 종교적 전통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참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아니면 많은 다른 종교가 잠재적으로 신자들을 신에게 인도하고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끄는 데 적합할까요? 우리는 기적의 교리와 신이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적을 행한다는 전체적인 생각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합리적일까요? 신이 기적을 행한다고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학이나 과학적 관점과 상충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특정한, 예를 들어 사람의 치유가 정말로 기적적인 신의 개입을 포함한다고 믿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경험적 탐구, 과학적 방법, 신학적 신념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듯이, 사실 신학적 관점이 과학을 수행하는 데 가장 좋은 관점이나 세계관적 맥락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과학이 가장 잘 수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의 맥락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또한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세상에 대한 그의 통제와 관련된 섭리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광범위한가요? 하나님은 역사와 개인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것들이 저절로 돌아가게 두는 시스템 내에서 어떤 작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는 전체 우주가 저절로 돌아가게 두고, 더 신앙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듯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섭리 교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종교 전통 내의 핵심 교리 두 가지, 즉 신의 성육신과 신의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자 신이라는 교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철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되셨고, 그는 성육신하셨습니다. 어떻게 모순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라는 이 두 가지 믿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둘은 조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어떻게 우리는 신이 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모순일까요? 우리의 무슬림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궁극적으로 그것은 다신교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세 인격이지만 여전히 한 신이라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것들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종교 철학 소개입니다.